2003년 3월 20일

경찰대학 제19기 졸업 및 임용식 치사

경찰대학 19기 졸업생 여러분,

학부모와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영예로운 대한민국의 경찰간부로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졸업과 임용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경찰간부를 길러내기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해 온 경찰대학장과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귀한 자녀들을 맡겨 주신 학부모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 경찰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참여정부' 의 시작과 함께 이 정든 교정을 떠나 국민 속으로 나아갑니다. 참여정부는 개혁과 통합의 정부입니다.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개혁과 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우리 14만여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해서 정부를 평가합니다. 경찰이 국민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으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찰은 개혁과 통합의 기수이자, 희망찬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는 큰 일꾼이기도 합니다.

졸업생과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 경찰이 이룩해 온 성과와 공헌에 대해서 높이 치하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찰은 한때 업무 수행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국민을 실망시킨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권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인사원칙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연이나 학연, 친소관계와 정치적 편향에 따른 인사로 경찰의 사기가 꺾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졸업생과 재학생,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경찰의 가장 큰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첫번째 사명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가슴아픈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우리 경찰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나라 안팎의 상황이 비상한 국면입니다. 이라크 사태와 북핵 문제 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찰이 민생치안과 사회안정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경찰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함과 좌절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특권과 반칙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조직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로 믿고 아끼고 돕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에도 부응해 나가야 합니다. 깨끗한 경찰은 우리 사회를 맑게 합니다. 경찰이 한순간이라도 정도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과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나는 경찰관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참여정부는 경찰의 희생과 인내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경찰 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업무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 또한 굳건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경찰도 이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실상의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추진해 나가되,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장기적인 계획 아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고단한 경찰의 길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보람도 큰 길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친절한 미소가 서민들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공권력의 행사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웁니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의 건강한 문화를 꽃피웁니다. 활기찬 경제와 튼튼한 안보도 확고한 치안 위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보람찬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